

도서관인을 위한 그림읽기: 책을 읽는 풍경

복합문화 공간 도서관



박희숙
미술칼럼니스트
bluep60@hanmail.net

도서관하면 의례히 조용히 책을 읽는 장소라던가 공부하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학교를 졸업한 후 다독가가 아니라면 도서관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도서관은 책을 읽는 장소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다.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화와 아동 인형극, 강연, 체험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알차고 질 좋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음악회다.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쁨을 같이하고 슬픔을 위로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악이지만 살면서 음악회를 자주 갈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통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을 찾아야 하는데 공연장 대부분은 도심에 있어 음악 마니아

가 아닌 일반인들은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쉽게 찾아가기 힘들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도서관에서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음악이 주는 감동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오르페우스 이야기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과 칼리오페 여신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아폴론 신은 오르페우스에게 리라를 선물하자 여인들은 그에게 연주하는 법을 가르쳤다. 오르페우스의 연주는 너무나 아름다워 짐승이나 나무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다. 오르페우스는 황금 양털을 찾아나서는 아르고 나우타이의 원정에도 참가해 노 젓는 사람들이 바다의 마녀 세이렌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음악을 연주하는 임무를 맡았다.

오르페우스 이야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음악으로 지하 세계를 감동시킨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숲의 님프인 아름다운 에우리디케와 결혼을 하지만 신

부는 첫날밤 뱀에게 물려 죽는다. 신부의 죽음에 절망한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찾기 위해 저승까지 갔다. 오르페우스는 죽음의 강을 지키고 있는 뱀사공 카론을 노래로 감화시켜 스틱스 강을 건너 저승세계까지 간다. 그곳에서 오르페우스는 노래를 불러 저승을 다스리는 하데스와 그의 부인 페르세포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마침내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신부 에우리디케를 지상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지상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연주를 하고 그 뒤를 에우리디케가 따랐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지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궁급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지하세계로 끌려가고 오르페우스는 영원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다. 절망에 빠져 리라만 연주하고 있던 오르페우스를 보다 못한 디오니소스는 그를 무녀 메나드에게 보낸다. 그런데 무녀 메나드는 그의 몸을 찢어 그의 머리를 헤브로스 강에 던져 버렸다.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의 이름을 부르며 강물을 떠다녔고 안티사 동굴에 닿은 후 신탁을 내리기 시작했다. 아폴론은 그를 질투하여 침묵하게 만들었다.

귀스타브 모로의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호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소설이나 음악으로 재탄생하였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덧붙여 오르페우스를 다룬 작품이 모로의 '오르페우스'다. 이 작품은 "한 젊은 여인이 헤브로 지방의 트라카야 강가까지 떠내려 온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리라를 경건하게 거둔다."라는 부제로 제작했다.

화면 오른쪽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강이 흐르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화면 왼쪽은 바위로 가려져 있어 분위기를 장엄하게 만들고 있다. 바위



오르페우스

1865년, 목판에 유채, 154×99cm, 파리 오르세미술관 소장

앞에 젊은 여인은 리라와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들고 서 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옷과 비극적인 장면과는 어울리지 않으나 모로는 당시에 발간된 고고학이나 문헌에서 찾아 여인의 옷을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모로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의 영향을 받아 은쟁반에 세레 요한의 목을 들고 있는 살로메처럼 젊은 여인이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귀스타브 모로(1826~1898)의 이 작품은 전통적인 신화의 이야기에서 벗어났지만 그가 만들어 낸 새로운 결말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표현했다.



음악회

1718년경, 캔버스에 유채, 66×91cm, 런던 웰리스컬렉션 소장

도서관에서 충분히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음악은 때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중에 음악처럼 대중하고 친숙한 것도 없다.

장 앙투안 와토의 '음악회'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이 와토의 '음악회'다. 이 작품은 귀족들의 야외 파티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면 중앙 분홍색 옷을 입은 류트 연주자는 악기를 조율하고 있고 화면 오른쪽 흑인 하인은 커다란 그릇에 담긴 와인을 고르고 있다.

화면 왼쪽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 그녀의 뒤에 있는 붉은 옷을 입은 남자는 의자에 기대고 있지만 여인은 남자의 시선을 피하기 위


해 얼굴을 돌리고 있다. 붉은 옷은 열정을 상징하며 남자가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화려한 옷차림과 하인이 와인을 고르고 있는 것은 부유한 귀족층의 삶을 의미한다.

그들은 폐허가 된 건축물 사이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기둥과 회랑은 깨끗하다. 폐허가 된 건축물은 삶의 잔인함을 나타내며 깨끗한 기둥과 회랑은 삶의 기쁨을 의미한다.

맑고 깨끗한 하늘은 그들이 야외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 뒤로 다른 행락객들이 초원

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다.

장 앙투안 와토(1684~1721)의 이 작품은 명랑하고 쾌활한 페트 갈랑트¹⁾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와토는 페트 갈랑트 양식의 창시자다. 와토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즉흥 가면희곡의 일종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은 이제 책 읽는 엄숙한 공간이 아닌 열려 있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알림

《도서관문화》 2009년 9월호를 시작으로 '도서관인을 위한 그림읽기' 코너를 집필해오시던 박희숙 미술칼럼니스트의 글은 이번호로 끝마칩니다.
그동안 좋은 글을 써주신 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1) 페트 갈랑트는 야외에서 우아하게 차려 입은 남녀 인물들이 사랑을 속삭이거나 세레나데를 부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낭만적인 장면을 말함.